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6월 25일

## CUOMO 주지사 항만 당국에 개정된 공항 내 수정된 와이파이 계약 승인 촉구

### *새로운 계약은 사용자들에게 무료 와이파이 30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JFK, LaGuardia 및 Stewart 공항에서 이용객들에게 Boingo Wireless를 통해 30분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정된 약관에 6월 25일 수요일의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승인하기 위해 항만 당국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주지사는 올해 초의 주 연설에서 뉴욕 공항의 현재 상황을 비판하고 국내외 주요 공항 과에 세계 수준의 시설로 국가의 공항을 전환하는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JFK와 LaGuardia에서의 건설 관리 통제와 JFK의 재건설을 주요 국제 물류 허브로 만들면서, 주지사는 매년 1억 9백만명의 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극적으로 고객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항만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JFK와 LaGuardia를 뉴욕 주민들이 바라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공항으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무료 와이파이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항만 당국은 수정 계약을 승인하여 우리의 공항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30분의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일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계약을 승인해야 합니다. 뉴욕의 공항은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경쟁자들에 비해 뒤쳐져 있었습니다. 저의 행정부는 우리의 주요 교통 허브가 일류보다 뒤쳐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안된 새로운 협의는 터미널에서 제한된 무료 Wi-Fi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 승객에 의해 요청된 주요 고객 서비스 향상에 응답합니다. 수정된 계약에 따라, Boingo는 올해 가을에 개선이 완료되면 제한된 무료 Wi-Fi 서비스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항만 당국의 공항에서 기존의 무선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30분의 무료 세션이 끝나면, 사용자들은 인터넷 속도에 따라 추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oingo의 자회사, New York Telecom Partners LLC는 30분의 무료 서비스를 위해 확장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운영 및 유지할 것입니다. New York Telecom은 항만 공사와 공동 비용의 시작

전에 5년 이상의 투자를 회사가 메우면서 380만 달러를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것입니다. 개선은 더 빠른 속도의 인터넷과 항만 공사의 공항에서 단말기를 통해 사용자를 위한 더 강한 신호 연결을 의미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